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개입 사례 평가: 희망연대노동조합

- △ 발 표: 김은선 전 희망연대노동조합 지역연대국장
사단법인 희망씨 상임이사
- △ 토 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 사 회: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연구교수

- 일 시: 2015년 8월 27일(목) 오후 4시
- 장 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주 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후 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과 더불어~~

- 노동조합의 지역사례 개입 : 희망연대노동조합 사례

김은선

2014년 희망연대노동조합 지역연대국장
현 더불어사는 삶 사단법인 희망씨 상임이사

■ 연대와 나눔을 통해 더불어사는 삶의 ‘공간’은 어디에나 있다.

1.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어떤 고민으로 출발하였나?

1) 무한 경쟁과 서열화! 내 삶의 주인은 자본?

2015년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과정에서, 거주지별 출세우기를 한 것인데, 2014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학교 인근의 대형아파트, 임대아파트, 기타(다세대 및 주택)로 구별한 것이다. 해당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하여 학교측에서는 시정하겠다고 했다고 하나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태어날때부터 출세위주 보육과 교육 전 과정을 통하여 노동자들 몸속 깊이 뿌리박히는 습성은 ‘서열화’ ‘무한경쟁’이다. 가진 순서대로 즐지워 지고,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즐지워 지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야, 다른 사람들을 제기고 올라서야 루저가 되지 않는 세상! 이러한 제도권 교육의 소위 일관된 가르침을 받고 사회화 된 노동자들은 철저히 자신의 일상적인 삶도 막다른 철길위에서 달려오는 기차에 치이지 않기 위해 내달리는 삶을 살고 있다.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시선도 여유도 없이...

불과 10여년 사이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릴 정도로 쉽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미 ‘루저’가 되어버린 대다수 노동자는 ‘20대엔 비정규 알바, 30대엔 비정규 파견, 40대엔 비정규 하청, 50대엔 비정규 일용, 60대엔 비정규 공공’으로 비정규 노동의 굴레속에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사회속에서 고용까지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여성·장애인·고령자·성소수자의 노동은 주류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비해 부차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어 더욱더

‘함부로 해도 되는 노동’ ‘용돈벌이’ ‘반찬값 벌이’ ‘손주 용돈주려고’ 등의 다양한 수식어가 붙으며, 제대로된 노동의 가치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의 노동은 더욱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그리고 더욱더 열악한 노동형태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삶의 공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이 바로 우리 누이이고, 자녀이고, 이웃이다. ‘별에서 온 노동자’가 아니라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골목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부딪히고 만나는 노동자임에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한 번도 주목한 적이 없고, 그들의 모동현실을 보듬어 주고 어루만져 줄 노동조합은 없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장시간 노동과 만연된 경쟁 구도 속에 항상 피로한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 체감 물가 인상과 불안한 노후를 위한 여러 가지 민간 보장책들, 자녀들의 교육관련 비용,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과 언제 일일 그만둘지 모르게 될 것이라는 ‘고용 불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끊임없는 ‘소비’를 조장하는 자본과 자본의 이익에 기대어 생명을 이어가는 정권, 자신들의 지배논리를 학습한 노동자들을 배출해 내는 ‘교육’이 만들어 낸 이 기가막힌 사회구조는 이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쉽 없이 ‘나 개인’을 채찍질 하게 하고,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워킹푸어’를 양산하며, 삶 자체가 버거움으로 다가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위로공단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인 콜센터 여성 노동자가 울먹이면서 한 말이 가슴 깊이 박힌다. “70년대에는 공순이가 있었다면 지금은 콜순이가 있는 것 같다.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회에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도 해 주고 싶고, 늙어가는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싶은데, 늙은 부모님께서서는 오히려 나를 걱정하신다.”

2)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발전적 평가 속에 희망연대노동조합 태동하다!

①기존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평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많은 사업장과 공장에서 노동조합들이 건설되고, 직장내 민주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였다. 과정에서 단위노조의 투쟁은 지역의 여타 노동자들의 임금에 있어서 도미노 인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본의 대응 속도는 노동자 조직화 속도를 훨씬 넘어서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구축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하락 시켰다. 단위사업장의 임금인상은 이윤추구에 눈먼 자본가로 하여금 외주·하청 노동자를 양산시키도록 했고,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들이 태동되었다.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는 전체 노동자의 삶이 질적으로 하락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며, 이들의 고용 및 근무 특성상 조직화되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되며, 노조 조직률 정체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발빠른 변화 움직임에 비하여 노동운동진영의 움직임은 매우 더뎠다. 민주노총 건설이후에, 노동운동 진영내에서는 조직적으로는 **산별 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민주노동당 건설**로 운동진영의 지향과 요구를 모아 갔다. 그런데 2008년도 넘어가면서 민주노동당이 분열되는 과정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또한 산별 노조로 조직화 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비판하고 반성해 왔던 대공장·정규직·남성 노동자 중심의 운동적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형적으로 형성된 불안정·비정규 노동에 대한 조직화 전망을 내오지 못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색이라는 다양한 흐름들이 현장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는 2007 노동운동 포럼과 2009 사회운동 포럼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공장·정규직·남성 노동자 중심의 운동을 벗어나서 사회전반의 불안정·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전략으로 굳이 업종별 산업별로 조직화되기보다, 작지만 지역별 자신의 사업장과 생계를 유지하는 샅터에서부터 조직화 되는 전략, 즉, 지역에 착목하여 수시로 노동시장을 들락날락하는 비정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전략을 내 와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들을 쏟아 내기 시작하였다.

②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십년의 평가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1999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투쟁과 조직화로 촉진 되었던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평가였다. 특수고용직(위탁계약직)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전국조직으로서 과반수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하였던 재능교육학습지 노조! 그 이후로 ‘이랜드노조’ ‘방송사비정규직 노조’ ‘한통계약직 노조’ ‘덤프’ ‘레미콘’ ‘화물연대’에 이르기까지 붓물 터지듯이 조직화 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비정규노동자 운동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과정의 어느덧 정규직 노조의 그러한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문제의식이 발동되기 시작하였다. 비정규 노동자로서 조직화하고 투쟁하는 과정 자체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 하지만 막상 조직화 이후에는 기존 노동조합의 운영 방식을 답습하는 형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조직화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조직화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조직화 할 것인가’ ‘조직화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로 비정규 조직화의 화두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사용자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더 당위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실제로 온전히 민주노조로 살아남기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 할거냐** 하는 것이 대두되었고, 이는 한 개 사업장에 하나의 그 안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들을 조직하는 기업별 노조 형태로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과 함께, 비정규직의 문제는 한 기업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에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라고 하는 측면은 지역안에서 그리고 사회적 연대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

따라서 당시, 그리고 현재까지도 정규직 노조가 담아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사업장 지불능력이 없

는 노동자들을 지역별로 묶어세우는 지역 노동조합이 건설되어야 하고, 사업장안에서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밖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운동 과제를 설정하고, 실현해 나가는 사회운동노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즉,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 하는 틀거리를 가진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고민하며,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출범하게 되었다.

즉, 노동운동 포럼을 통해 기존 노동운동의 큰 두가지 전략, ‘산별중심의 조직화전략과 민주노동당건설로 이어지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 전략’ 이 한계에 도달았음을 깨닫고, 노동자 개인 삶의 변화까지 일구어 내는 산별이 아닌 지역중심의 노동운동을 펼쳐야 하며, 비슷한 맥락에서 비정규직·중소영세자영업자의 조직은 한 기업내에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안에서 광범위하게 조직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설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뜻있는 활동가들이 소위 기존 노동조합의 질서에 역행하는 ‘선언’인 ‘지역중심 노동조합’ ‘지역사회연대 전략을 실현하는 노동조합’의 기치로 희망연대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된다.

③ 희망연대노동조합의 태동

노동운동 포럼과 사회운동 포럼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단위들이 모여 서울지역에서의 지역사회운동노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다양한 형태의 지역노조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울일반노조, 서경지부, 사무연대 노조 등... 그러나 기존에 조직화된 노동조합에서는 기존 관행을 떨쳐 내기가 쉽지 않았고, 또한 제시하는 노동조합의 모델이 현존하는 상황속에서 다소 추상적인 구호로만 머물며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우선 가능한 단위부터 먼저 건설하고,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기존의 노동조합들과 순차적으로 논의하며 통합해 나가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2009년 12월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건설되게 된다.

과정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많은 외부적 비판에 접하게 된다. 2009년 12월 노동조합이 건설되기 까지 ‘정파조직’이다. ‘민주노총 방침에 반하는 조직이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두고 보자’ 등의 시선과 비판이 팽배하였고, 그 속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초기에 외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2. 희망연대노동조합 현황

1) 희망연대노동조합 연혁¹⁾

1) 희망연대노동조합 2015년 정기 총회자료집

2007 - 2009

- 2007-2009 지역사회운동노조에 대한 토론
- 2009. 희망연대노동조합 창립(9명 발기인 위원장 김진익/사무국장 박재범)

2010

- 1.25 씨앤엠 지부 설립과 투쟁(10개월 동안 노조 사수투쟁, 35일 파업, 11.11 기본협약서 체결)
- 10.1 지역지부 건설 추진 : 서부(은평), 서남(구로, 영등포) 지역
- 10.15 한국이관트글로벌원 지부 가입과 투쟁(65일 파업, 2011년 2.18일 단체협약 체결)
- 12.2 더불어사는지부 건설

* 소모임 활동 : 지역연대모임(희망), 국제노동자연대모임(아름연대), 문화인문모임(놀까)

2011

- 2.24 1년차 정기총회 (2기 임원 : 위원장 김진익/부위원장 최유홍/ 사무국장 박재범)
- 5.1 노동절대회 참가
- 6.25 ktis지부 건설과 투쟁 / 7.2 ktcs지부 건설과 투쟁
- 6.29 씨앤엠 2011년 임단협 체결(조합원 평균 13.1% 인상 등)
- 9.2 지역연대를 위한 하루주점
- 9.15 텔레마케터 지부 건설
- 10.3 ktcs 고 전해남 지부장 죽음과 투쟁(죽음의 기업 kt 공대위 구성과 투쟁)
- 10.19 강동지역 사회공헌사업(아동청소년사업) 협약식 11.1 성북지역 협약식
- 12.3 ktcs 고 전해남 지부장 문제 타결 및 장례식

2012

- 1.18 2년차 정기총회(2기 임원 보궐선거 : 공동위원장 지인웅/부위원장 김시권)
- 4.26 케이블방송 산업 규제 완화와 공공성 확보 토론회
- 5.1 122주년 노동절대회 참가(대학로 → 시청 행진)
- 3.17 2기 노동자학교 시작(3.17~28, 24~25, 4.14~15, 4.21~22, 9.15~16, 9.22~23, 12.2~2 진행)
- 7.24 씨앤엠지부 3.8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 진행하여 임단협 타결
- 8.2 한국이관트글로벌원지부 정리하고 타결
- 9.12 다산콜센터지부 건설과 투쟁
- 10.13 씨앤엠지부 가족과 함께하는 조합 आयु회
- 11.16 네팔 이주노동자와 연대 및 네팔아동 학교 보내기 사업 위한 네팔방문
- 12.7 지역연대네팔아동학교보내기투쟁기금 마련 위한 하루주점

2013

- 2.25 4년차 정기총회 (3기 지도부 선출 : 공동위원장 이종탁, 최문호, 김하늬 / 사무국장 윤진영)
- 2.13 케비지부 건설과 투쟁
- 3.11 케이블방송노동실태 토론회
- 3.24 티브로드지부 건설과 투쟁
- 4.6 2013 노동자학교 (4.6~4.23) : 씨앤엠지부, 케비지부 중심으로 진행
- 5.15 씨앤엠-케비-케비티 합동촛불문화제
- 8.13 케비지부 조인식
- 9.6 다산콜센터지부 조인식
- 9.7 1차 희망자하철
- 9.12 사회공헌사업 보고대회
- 10.31 케비티지부 조인식
- 11.5 나눔과 연대를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사단법인 희망C창립총회
- 11.13 씨앤엠-케비-케비티 합동집회 (원케이블 표적 해고, 대성 임단협 불이행 원청의 재하도급 금지 합의 위반)
- 11.4 권역별 학부모강좌 (11.4, 11.8, 11.18, 11.15, 11.22)
- 11.21 다산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실태 및 직접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토론회
- 12.7 네팔 이주노동자와 연대 및 네팔 희망학교 짓기를 위한 나눔연대 여행 (12.7~12.15)

2014

- 2.25 5년차 정기총회
- 3.8 희망연대노조 연애강좌
- 3.22 ~4.19 성장교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목공교실 진행 (희망씨, 남양주 사회공헌사업단)
- 3.31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건설과 투쟁
- 4.13 노조결성 보고대회(SK브로드밴드 350, LG유플러스 250여명 참가)
- 4.16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노동실태발표 토론회, 교섭절차 돌입 후 10월 초중순 조정 결정
- 5.24 ~25 부부힐링캠프 (희망씨와 공동주관)
- 5.31 케이블 3개 지부 공동 출정식 (청계광장)
- 6.10 케이블 3개 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보신각)
- 9.2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광화문 저잣거리 (티브로드 앞)
- 9.18 케비지부 MBK 면담투쟁 진행
- 10.4 SK비지부 1차 간부파업 6~8일 1차 경고파업
- 10.8 LG비지부 1차 경고파업(~11)
- 10.11 ~12 남양주 레인보우 힐링캠프 "어깨동무" (남양주희망아울림사업단)
- 10.15 다산콜센터지부 임단협 타결 (임금인상, 상여인상, 안식휴가, 병가, 모성보호시간,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각종 경조휴가 등)
- 10.25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MBK 앞)
- 11.7 씨앤엠 사회공헌사업 보고대회
- 11.12 케비지부 임정균·강성덕조합원 서울신문 광고판 고공농성 돌입
- 11.17 LG비지부 전면파업 돌입
- 11.18 씨앤엠지부 전면파업 돌입
- 11.20 SK비지부 전면파업 돌입
- 11.21 통신 파업투쟁 결의대회
- 12.2 케이블방송통신 1차 결의대회
- 12.10 씨앤엠지부 맥쿼리 면담투쟁 진행
- 12.29 다산콜센터 직고용 전환 로드맵 발표
- 12.31 씨앤엠 케비지부 임단협 타결

2) 희망연대노동조합 조직현황

조직명		대표자	조합원수
지부	씨앤엠지부	김진규	337
	ktis 지부	미선출	14
	ktcs 지부	명순석	12
	다산콜센터지부	손창우	270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김영수	494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이영진	270
	더불어사는지부	나현필	45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이해조	1018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경상현	747
소계			3,207

3) 희망연대노조 소개

*희망연대노동조합 정기총회자료집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p>희망연대노조는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는 노조입니다.²⁾</p> <p>- 지역사회운동노조-희망연대노조는 아래의 활동을 전개하고 지향합니다.</p> <p>◎ 작업장 투쟁(임금인상-단체협약-현장투쟁)을 기본으로 합니다.</p> <p>작업장 투쟁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작업장 투쟁을 통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보장을 쟁취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비주체적으로 일하던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고 투쟁으로 쟁취하는 작업장 투쟁은 소중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직장을 사람이 소중한 직장, 민주적인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p> <p>◎ 작업장 투쟁을 넘어 노동자의 사회적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p> <p>현 시대, 사용자-자본은 노동자 분할하고 분열시킴으로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기업노동자, 원청과 하청노동자, 남성과 여성노동자, 내국인</p>
--

과 이주노동자를 나누고 분열시켜 노노 갈등을 유도하고 대다수 노동자를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몰아가고 상시적 구조조정-해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와 생존권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영세소기업은 불공정거래를 강요받고 있고 유지하기에 급급하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지불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년노동자와 실업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불안정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작업장 투쟁만으로는 비정규·중소영세·미조직노동자들과 민중들의 권리,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생존권 투쟁이 필요합니다. 실업노동자, 불안정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 책임으로 국가가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실업,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확대,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저임금 노동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쟁취하기 위한 사회 권리 확보 투쟁을 전개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운동노조-희망연대노조는 작업장 투쟁을 넘어 사회적 생존권 투쟁과 사회권리 확보 투쟁을 통하여 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운동, 더불어 살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화하여 노동자의 자부심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활동을 전개 합니다.

전체노동자 중 10%만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90%는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조직된 노동자 대다수는 영세소기업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들입니다. 가장 조직하기 어렵고 권리 보장이 쉽지 않은 노동자들입니다. 지역사회운동노조는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운동과 생활-문화-교육-사회운동을 결합하고 지역에서 생활문화공동체를 실현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조직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는 머리띠를 묶고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하지만 삶의 공간에서 자본에 종속되고 내면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한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사교육에 열심입니다. 최소한의 ‘노후보장’ 을 위해 사보험을 드는 것은 기본이고, ‘더 잘살겠다는 욕망’ 으로 펀드, 주식 투자에 부동산 등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 살기에 바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있지 못합니다. 설혹 맘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이지, 사는데 급급합니다.」

조직노동자-조합원은 작업장에서 머리띠를 묶고 투쟁한다 하더라도 재생산 공간, 지역에서

철저히 자본에 종속되고 내면화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재생산 공간은 일터에서 시달리고 나서 지친 몸으로 돌아와 잠자고 옷 갈아입는 아주 기초적인 소비와 생활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뿐입니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소비, 향락 문화에 물들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중간이라도 가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존재(노동자)와 의식(사용자)의 불일치, 의식과 행동의 불일치가 보다 분명해지는 공간이 재생산 공간입니다. 다수가 의식하지 않고 애써 모르는 척 외면하지만 자본주의적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자본주의에 굴복하고 굴종하는 공간이 재생산 공간입니다. 재생산-생활·문화·소비의 영역에서 노동자 민중의 대안적 삶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소중한 사회로 진보적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쟁교육을 거부하고 공교육 강화를 넘어 새로운 대안교육을 모색, 실현하는 집단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적 보험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강화하고 공적 의료체계를 통해 모두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요구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친환경-생태운동과 결합하고 어우러지고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잔이 제3세계 농업노동자 착취를 통해 초국적 자본 네슬레의 탐욕, 이윤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공정무역을 통해 제3세계 농업노동자의 자립과 생존으로 귀결되고 대안세계 건설을 위한 주체와 근거지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운동노조의 활동은 생산과 재생산-생활·문화·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대안적 삶으로 아우르고 결합시키는 운동, 생활문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 연대 교류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국제연대 교류는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제3세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각국 노동자 투쟁에 함께 마음 졸이고 지지, 성원하는 마음, 연대감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가까운 주변 노동자에 대한 연대감 없이 국제적 연대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밭 딛고 있는 그 공간, 현실로부터 연대의 식과 연대를 확장하는 실천으로부터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불안정노동, 전쟁과 폭력에 맞선 대안세계운동을 우리 삶과 운동 속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계급적 공정무역, 다른 나라 노동자 민중의 삶과 역사, 투쟁을 함께 공감하고 연대감을 표하고 힘을 얻는 착한여행, 폭력과 전쟁에 맞선 반전평화운동 등 우리 주변엔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실현할 활동이 널려 있습니다. 지역사회운동노조는 이를 조합원의 삶과 실천 속에 생활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3.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 왔는가?

☞ 낮은 곳으로의 연대!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과 더불어!

1) 생활문화연대운동

: 생산-재생공간을 아울러 조합원의 삶의 가치를 바꾸기 위하여 조합원 생의 주기에 맞는 고민들을 현실화 시키며 다양하게 시도해 오고 있다. 줄세우기·무한경쟁·길들이기에 익숙한 조합원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기에 조합원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작업부터 진행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강화의 측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① 소모임

초기 : 다양한 소모임의 목적의식적 운영과 지원 - 그린나래, 아름연대, 희망c, 놀개

현재 : 자발적이고 다양한 소모임의 생성과 운영 - 콜센터 노동자 중심의 몸펴기(다산콜센터, 텔레웍스), 자전거동아리, 야구동아리, 텃밭동아리, 공방모임, 켈트모임, 기타반 등

※ 소모임의 구성원이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만으로 국한되거나 구성되어 있지 않다

희망연대노동조합에서 소모임 지원 기준 : 3개 이상 지회원 10명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

-> 노동조합의 폐쇄성을 극복하려 애씀.

-> 지역주민, 여타 단체활동가들과 함께 꾸려가는 소모임이 되고 있음.

-> 소모임의 성과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려고 함.

② 가족프로그램 운영

- 부부소통강좌, 학부모강좌, 목공교실, 힐링캠프, 가을가족 나들이 등
- 특히 힐링캠프와 목공교실은 관계 맺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와 기획을 같이 하여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학부모 강좌 역시 서울의 4개권역 동시에 진행하였고, 지역의 강사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등 지역과 다양하게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③ 기타

- 조합원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배치
- 다양한 감수성을 높이는 사업 : 연애강좌, 조합원 총회시 인문학 강좌 개최, 공동체 영화상영 등
- 다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업 : 명상수련, 힐링캠프, 심리정서지원 등
- 다양한 인문 모임 : 행복세미나 “다행콘서트”, 조합원 노동인권모임, 케이블 노동자 영상미디

어 워크숍 등

2) 지역연대·나눔연대

: 크게 세가지 축으로 진행됨. 사회공헌사업과 투쟁시기 지역대책위 활동, 자발적 지역연대활동

①사회공헌사업

가. 재원 : 2011년부터 2015년 현재 까지 11개 지역 13억 5천만원 투여

2011년 1억5천, 성북·강동지역으로 시작한 사업이, 2014년에는 6억, 씨앤앰사업지역(성북, 성동광진, 강동, 송파, 구로, 남양주), 티브로드사업지역(노원, 강북, 강서, 안양, 안산)으로 확대 되었다. 그리고 2015년 현재는 씨앤앰 사회공헌사업은 사업지역은 2014년과 동일하게 3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티브로드사회공헌사업은 2014년 티브로드 사측의 완강한 저항으로 추가기금 지급없이 2014년 잔여기금으로 사업 진행되고 있고, 사업지역은 2014년과 동일하다.

나. 사회공헌사업 진행방식

- 노동조합의 입단협 과정에서 확보한 금액을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회사는 재원만 대고 있음.

사회공헌사업의 원칙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
/ 희망연대노동조합도 네트워크의 한 주체로 활동할 것
/ 노동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이야기 할 것

- 사업내용은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이 주된 사업이지만, 취약계층 지원사업 영역으로까지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지역마다 지역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상황에 맞게 사업 내용을 설정하고 함께 운영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아동지원사업, 이주민자녀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심리정서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의료지원사업, 반찬배달사업 등 다양하다.

- 조합원들은 희망의 집수리 자원봉사, 요리교실/이주노동자 건강검진/어울림캠프 등 매 사업 진행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역할을 주되게 하였다.

-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사업 시행초기 지역단체를 만나 사업을 설명하고, 네트워크를 꾸리며, 사업단을 운영하는 역할과 더불어, 실제 사업단 내에서는 지역과 ‘노동’을 주제로 소통하는 역할을 주되게 맡았다. 따라서 부모/학생/아동청소년 사업 종사자들 등 지역내 다양한 계층과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사회공헌사업단 연석회의

: 2012년 사회공헌사업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기점으로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사회공헌사업 연석회의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지역사회연대전략의 하나로서 시행되는 것임을 지역분들과 공유하고, 희망연대노동조합 현

장간부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며, 조합원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는 회의 체계로서, 노동조합 상황에 따라 격월 혹은 분기별로 진행되어 왔다.

: 연석회의 에서는 해마다 그 해 사업을 총화하는 보고대회 및 토론회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토론 주제로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의 사회공헌사업 결합방안” 으로서 현장 간부들과 지역 단체가 함께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인지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 이런 결과물로서, 2014년부터는 각 사업단 별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 을 배치해서 지역의 조합원들이 봉사자로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참여 할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사회공헌 사업 지역별 참여 단위

지역	사업 시작 연도	결합단위	결합 지부 혹은 지회	특이사항
강동	2011년 하반기	강동희망기움네트워크 - 참여기관 :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동지회, 강동시민연대, 열린사회강동송파심사회, 강동송파교육희망네트워크, 한 살림동부지부, 강동희망나눔센터, 북소리(책읽어주기 자원활동가 동아리), 개인참여 - 협력기관 : 강동지역아동복지센터, 굿네이버스 강동지부, 천일도서관 웃는책,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협약기관 : 강동구, 희망연대노동조합, 주)씨앤엠	씨앤엠지부 강동송파지회	
성북	2011년 하반기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 강북성북교육희망네트워크,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나눔과미래, 나무와 열매, 놀이나무(주), 마음복지관, 마음새미술치료센터,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우리내과, 서울북부 두레생협, 성북교육복지센터, 성북나눔연대, 성북나눔의 집,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성북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북청소년자활지원관,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에듀닥터바른배움(주), 월곡교회, 인디학교, 작은문화공동체 다솔, 장애인문화예술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희망재단, 킷킷맘키드, 풍경소리, 하나다문화센터 다린, 하름이 청소년 성문화센터, 희망연대노동	케비지부 팀스지회	

		조합, 개인참여		
성동광진	2012년 하반기	광진성동 두근두근 뚝섬넷 - 도깨비방망이 지역아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사)희망씨, 두근두근인권탐험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즐거운청년커뮤니티 @끌림, 성동겨레하나, 통합진보당성동을, 광진주민연대, 희망연대노동조합, 성동책모임, 개인참여	케비지부 이플러스지회 케비지부 광진성동지회	
구로	2013년	구로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용산	2013년	용산아동복지네트워크(준)	씨앤엠지부 중부기술지회, 중부마케팅지회	사업종료
남양주	2014년	희망어울림 사업단 -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남양주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리남양주지회, 희망연대노동조합 ▪협력하는 단체 : 남양주사회적기업협의회외	씨앤엠지부 경동지회 케비지부 기가지회	
송파	2014년	송파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 - 송파시민연대, 즐거운 가, 희망연대노동조합, (사)희망씨, 개인참여자(황숙자, 곡광미)	씨앤엠지부 강동송파지회, 텔레웍스지회	
안양	2014년	안양군포의왕 아동청소년사업단 - 대안과 나눔, 난치병아동돕기 희망세움터, 인생나자 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아시아의 창, 뇌병변장애자녀부모회 열손가락, 안양군포비정규직센터, 푸른어린이도서관, 안양지역아동센터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케비지부 안양권역 4개지회	2015년 2개단체 지원/사업단 회의 격월 진행
안산	2014년	안산지역 취약계층지원 자녀학습 및 반찬지원 사업단 '아이♥찬' - 안산·시흥지역노동자생활공제회(준), 밥심소풍가 협동조합,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희망연대노동조합, 안산·시흥비정규네트워크, 안산지역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네트워크, 안산지역 성평등교육강사단	케비지부 안산권역 3개지회	2015년 현재 사업단 회의 격월 진행
노원	2014년	노원희망자립사업단 -노원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희망씨,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	케비지부 도봉노원지회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마들창조학교, 어린이책시민연대 노원지회, 함께 노원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연대노조힐링협동조합, 느티나무 <숲이랑>		
강북	2014년	강북 사업단 -(사)녹색마을사람들, 강북교육복지센터,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두루두루배움터, 마을예술창작소 다락방, 배움터 이다, 산 지역아동센터, 서울시립 강북 I will센터, 열린사회복지시민회,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해든 마음돌봄사회적협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티브로드지부	케비티지부 강북기술지 회	
강서	2014년	강서양천 행복나눔사업단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서울강서양천 여성의전화, 동서융합병원, 서울의료생협, 보건의료노조이화의원지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노조,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양천분회,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	케비티지부 강서권역 2 개지회,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 부 강서지 회	

※사단법인 희망씨 출범

-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사관계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좀 더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나눔 사업 및 전문적인 생활문화연대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2013년 총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그 해 하반기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중적 나눔연대 법인’ 을 출범하게 된다.
- 사단법인 희망씨는 조직적 결의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생활문화연대 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 독자적인 사업 영역으로서 조합원의 다양한 대중적 나눔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취약계층 아동 과일나눔 사업’ 을 계획하고, 현재 시범사업기간으로서 안양지역부터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 대부분이 설치수리기사들로서 지역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들과 일상적 연대가 가능한 것을 심분 활용하여, 상정된 계획으로서 과일나눔사업이 안정화 되면, 구축된 지역 단체 활동가들과 연계하여 나눔이 필요한 계층들과 다양한 나눔을 실행하는 “희망엽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다.
- 또한 희망씨 설립이후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중의 하나는 ‘노동인권교육’ 이다. 지역에 계신 다양한 분들과 ‘노동’ 을 주제로 만나며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해소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동네 케이블 인터넷 설치 수리 기사님들’ ‘씨앤엠 작업복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만큼 ‘노동’ 이 지역과 친근해 지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취지 : 노동조합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건강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연대실현을 위해서
- 구성원 :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
- 주요 사업 : 현재는 희망연대노동조합과 생활문화연대사업 및 지역연대 사업에서 협력사업
진행중, 2015년 부터는 좀더 나눔사업과 교육사업, 가족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전
개할 예정

②지역대책위

- 케이블 투쟁 과정에서 지역 풀뿌리 단체까지 함께 하는 광범위한 지역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
다. 이것은 희망연대노동조합이 다년간 지역사업을 진행해온 성과라 할 수 있다.
- 2014년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존재의 어려움까지 갈 수도 있었던 투쟁을 전개하였다.
2014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케이블방송통신 3개지부의 파업과 비정규노동자들의 직장폐쇄, 그리
고 계약해지! 그리고 이어진 통신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 두 번의 고공농성, 세 번의 원청 면담
투쟁, 뜨거운 여름날을 달구었던 교황면담 투쟁 등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몇 달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며, 이들의 생계비 마련을 위해 ‘채권’도 판매하며, 오로지 투쟁승리만
을 바라보고 전 조직적 힘이 실리던 시기였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후 아무것도 담보 할 수 없
다는 생각으로 매진하여 2015년 4월 통신투쟁 마무리까지 근 1년을 조직과 투쟁에 전력을 쏟을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시기 정말 많은 힘이 되었던 것은 ‘사회연대’ 적 힘이었다.
-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단체들이 거의 1년여간 지속된 희망연대노동자들의 투쟁의 과정을 끝
까지 지지하고, 연대해 주었으며, 특히 지역에서 다양한 실천들을 해 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특성상 원청이 움직여야 ‘비용’ 적 측면은 해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별 협력
업체 타격은 말 그대로 제살깎아먹기 경쟁일변도의 업계 특성상 원청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었다.
- 2014년 투쟁당시 지역대책위(지지도임)이 구성된 지역은 노원, 강북, 성북, 마포서대문, 용산, 강
동송파, 성동광진, 안양 등이다.

③조합원들의 자발적 지역연대

- 용산지역 조합원들의 지역아동센터 후원,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투쟁 결합
- 의정부권역 조합원들의 영아원 봉사활동
- 안양지역조합원들의 코오롱 대책위 결합,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결합 등
- 인천 조합원들의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풀뿌리 지역단체와 결합 활동
- 다산콜센터지부 조합원들의 나눔활동 등

3) 국제연대

-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시선이 우리나라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 민중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네팔 연대를 진행하였다.
: 사업파트너 - 신미귀(네팔 귀환 이주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단체)
: 사업내용 - 네팔 나눔여행
 뻬번지역 학교 급식비 지원 : 저금통사업
 포카라 지역 학교짓기 사업

※뻬번지역과 포카라 지역은 동일하게 네팔의 채석장 마을이다.

뻬번지역에는 공립학교 있으나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부모님의 일터로 나가 돌을 캐면서 끼니를 해결한다. 이에 2012년 희망연대노동조합 네팔나눔여행단이 뻬번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급식비 지원’을 약속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2013년부터 저금통을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매월 25만원씩의 뻬번지역 어린이 돕기 급식비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게 되었다. 어느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북카페 등 지역단체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포카라 지역은 학교자체가 없어 아이들이 먼거리를 통학하거나, 학교를 아예 진학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학교가 세워 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희망사항은 씨앤엠지부 사회공헌기금으로 현실화 되었다. 2014년부터 씨앤엠사회공헌 기금으로 학교가 건립되었고, 2015년에는 증축을 앞두고 있다.

: 원칙 - 네팔 현지민들과 네트워크를 사업의 중심에 두었다.

예) 포카라지역 학교짓기 사업

신미귀 + 네팔 노총 + 현지인 대표 + 희망연대노동조합 등 9개 단체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 2015년 지진 피해돕기 : 2015년 4월 네팔 나눔사업 점검차 네팔을 방문했던 희망연대노동조합 5인의 방문단은 네팔에서 강진을 만나게 된다. 몇 년에 걸쳐 네팔과 교류하며 연대의 끈을 갖고 있던 차에 함께 네팔에서 겪은 지진은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생겨나게 되고, 네팔민중돕기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목적의식적인 “교육” 과 “노동조합 조직체계” 이다.

1) 교육

-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교육시간, 간부교육시간, 총파업 투쟁기간, 신규노동자 조직화 시기 등 조합원들을 만나는 매 시기마다 “지역사회운동노조”로서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 하고, 교육하며, 사업 계획시 의견을 묻는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
-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외에도 2011년, 2012년, 2013년 ‘노동자학교’ 과정을 개설해 전 조합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가치와 지향을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고, 씨앤앰 정규직 지부는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2) 조직체계

-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본조조직에서 생활문화연대국을 두어, 생활문화연대국장, 나눔연대국장, 지역연대국장을 배치하고, 관련 사업만을 하도록 업무내용을 특화하고 있으며, 요즘과 같이 노동조합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관련 사업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가장 큰 힘이다.
- 또한, 각 지부뿐만 아니라 가장 하부조직인 지회까지 생활문화연대부장 및 생활문화연대차장을 모두 선임하고 있다. 물론, 현재는 본조를 제외한 생활문화연대부/차장들은 모두 투쟁을 지원하는 지역단위를 꾸리기 위한 영역의 활동만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는 하나, 노동조합의 골간을 타고 생활문화연대사업이 흐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은 것이 핵심이다.

3) 간부순환제

- 지역연대사업적 흐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부순환제를 통해서 고민의 고리를 순순환하고, 고정화된 틀에 갇혀 있지 않는 노동조합이 될 것을 결의 하고 있다. 현재, 6년차에 접어든 씨앤앰지부의 경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최소한 지회간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임자 역시도 임기 이후에 대부분 순환하며, 전직 간부들이 현장에서 현직 간부들을 받혀 주며, 생활문화연대사업을 담당하도록 조직적 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다.

5. 현재의 고민과 과제

1)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지역사회연대! 아직은 실험중

아직은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시도가 실험 단계로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실험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삶의 변화를 일구어 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사실 매우 모호하여, 때로는 조합원들과 이야기 나누며 스스로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다. 이에 대한 좀더 깊은 고민과 구체화 작업이 2015년에는 요구된다.

2) 조합원들의 경험이 가장 중요!

생활문화연대사업과 관련 노동조합에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에서 하는 일’ ‘일과 후 또 한 번 내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노동조합 활동!’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생활문화연대, 나눔연대, 지역연대 사업을 기획하고 펼쳐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사업의 성격상 경험하지 않으면 체감도가 현저히 낮아서 조합원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봉사활동이든, 가족프로그램이든, 텃밭사업이든, 소모임이든, 네팔나눔여행이든, 저금통 모금사업이든 다양한 종류의 생활문화연대사업의 영역에서 한 가지라도 경험한 조합원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각종 사업의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노동조합의 사업 담당자들은 조합원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관심지점들을 끊임없이 고찰하고 있다.

3) 전국조직으로서 사업적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

수도권 중심으로 태동했던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어느덧 전국조직으로 외연이 확대되었다. 급격히 늘어난 조합원 수만큼, 급격히 확장된 조합원들의 삶터와 일터의 공간만큼 노동조합의 사업과 관련한 진행 속도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지부 건설까지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 주체를 세우고, 권역별 사업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향후 몇 년간 지역사회운동 노조로서 희망연대노동조합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4)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조직적 어려움

2009년 희망연대노동조합 건설 이후 씨앤엠지부의 조직화와 투쟁을 겪으면서 많은 모험과 실험을 하였다.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노조 조직화를 이루어 내며,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까지 희망연대노동조합 원년 멤버들의 희생과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후 6년여의 세월이 흘러 급격히 확장된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조직적 상황은 여러측면에서 조직운영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조직적 안정화와 전국조직으로서 생활문화연대사업의 틀을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해 2-3년의 시간이 소요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힘든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생활문화연대’ ‘지역연대’ 가치를 놓치지 않고 가기 위한 조직적 노력과 고민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5) 자본에 포섭된 지역! 사회변화의 실마리는 노동과 지역의 연대에 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손을 내밀었을 때, 지역사회의 반응은 다양했다. 그러나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기금 지원단체” 정도로 사고하는 지역분들을 보았을 때이다. 여타 공헌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이나 대기업처럼 기금만 지원하면 좋겠건만 회의도 같이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도 같이하면서, 지역 단체의 민낯을 내보이는게 싫기도 했겠거니와 매 시기마다 ‘노동’ 과 ‘노동자’ ‘노동조합의 현황’ 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 했던 지역들이 있다.

독자적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많은 지역의 단체들이 공공기관이나, 공익재단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응모하면서 이미 그 패턴에 익숙해지진 않았는지, 그러면서 어느덧 관습처럼 몸 에 배어 버린 보수적 삶의 패턴을 지역단체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질 때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제언을 마치 ‘독배’ 처럼 느끼는 일부 지역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평가이기도 하나, 지방자치제가 현실화 된 이후 지역운동은 상당히 과거와는 다르게 변질 되었다고 보는데, 서울의 경우 행정구역상 자치구를 벗어나는 활동을 대부분 하지 않게 된단디, 지역내의 정과구도가 좀 더 명확해 지는 구도가 노동조합과의 연대 상황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지역연대의 상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연대와 나눔을 통해 더불어사는 삶의 ‘공간’ 은 어디에나 있다.

고민하고, 행동하는 곳은 모두 공간이 될 수 있다. 특정 유형화된 곳에 국한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새로운 시선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과 만나며 여러분들과 ‘노동’ 을 이야기 한다. 노동조합에 대해 빨간 시선을 갖는 분들이 아직도 많지만 자주 접하다 보니 어느새 그 분들도 노동조합 열혈 지지자가 되어 계신다. 때로는 희망연대노동조합에서 ‘노동인권’ 을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 조합원으로 조직하려고 하냐고 묻는다. 내심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순간 그렇게 되지 않겠냐며 생각한다. 아직 조직되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역에는 많이 있고, 이들을 담을 그릇은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조합의 쳄바퀴 돌 듯 돌아가는 임단협 투쟁을 넘어선 지역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불능력 없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태도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지역의 수많은 노동자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그런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역의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6. 첨부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1) 김진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국장 인터뷰 자료, 월간 오늘보다(2015년 2월)
- 2) 김은선 “희망연대노동조합 5년의 모습은 어떠한가?”, 2014년 작성

[토론]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실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1. 지역사회노동운동의 성과

‘지역사회노동조합’을 표방하고 2009년 창립한 희망연대노조의 활동은 여러모로 주목할만하다. 물론 통신 유지보수 등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새로이 생겨나는, 그러나 사업장과 노동과정 특성상 기존 노조 조직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서비스 부문을 급속하게 조직한 것이 가장 큰 가시적 성과다. 조직을 지키고 임단협을 공세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이 있었음도 분명하다.

그러나 노조 창립을 준비할 때부터 기존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노정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긴 토론을 거쳐 차별적인 조직 방식과 지역 개입전략이라는 노선을 채택한 점, 그리고 그것을 지역연대와 노조 주도의 사회공헌사업, 생활문화연대운동, 사단법인 희망씨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획들로 실현하여 실제 사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역연대 활동의 의미를 조합원 삶의 변화, 사회연대 투쟁 전략, 장기적인 조직화 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적극 공감하며, 지역연대와 개입 전략은 어떤 도식적인 모델 또는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기 보다는 일정하게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내실은 따져 보아야

이제 겨우 5년이 흘렀고, 숨가쁘게 이어진 투쟁을 병행하며 펼쳐진 사업이기에 지역 개입 활동의 성과를 쉬이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이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는 중간평가를 해봄직하다. 이러한 사업들이 특히 조합원의 인식과 생활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지역민(이 역시 해석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에게 노조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각 사업들이 다시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조합원의 변화로 피드백되고 상승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3. 기존 노조 조직구조가 하지 못했던 이유

희망연대노조가 애초 가졌던 문제의식과 제기했던 문제는 노조의 조직화 방식, 조직 구조, 활동 내용과 방식 모두를 포괄한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경우 기존의 총연맹 또는 산별의 조직 단위에서 백안시되거나 이해되지 못했음도 드러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의 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시사점이 있다면, 이에 비추어 기존 노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맹점도 다시 조명되고 객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 노조 조직의 갱신이나 재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태도이며 작업이다.

4. '지역사회운동' 자체의 재규정 또는 의미 심화 필요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봄에도,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운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함이 있다고 여겨진다. 조합원이 퇴근 후에 자본주의적 삶에 종속되고 만다는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면, 노조의 활동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거나 다른 파동을 일으킬 것인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민중의집'도 그런 구상을 갖고 출발했으나 여전히 차별성이 부족한 지역문화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도 그런 사고와 기획의 부족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노동이 존중되고 또한 다양한 연대가 일상화되는 '다른 지역사회'와 그 속에서 조합원/비조합원 삶의 변화라는 그림까지 그려볼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

5. 민주노조 운동의 전화 한 축이 될 수 있기를

희망연대노조의 주체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듯, 당분간 희망연대노조는 조직을 지키고 확장하면서 민주노조 운동에 사례 제공과 환기의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희망연대노조는 왜 노동자들은 자발적 결사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지키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노동조합의 시원적 질문에 충실했다는 점이 좀 더 본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질문이 지금 요청되는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조직의 형식과 내용과 스타일이란 무엇인가라는 더욱 열린 대중적 토론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토론2] Community Unionism과 희망연대노동조합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지역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하고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개입하고 있음. 희망연대노조는 21세기 한국의 도시지역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Community Unionism’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음.

Community Unionism

- Community Unionism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노동조합과 비노동조직 간 연합의 형성과 관련된 상호주의적 노조주의를 지칭함.
 - Community Unionism은 고용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포괄적 조직화를 추구하고, 작업장 이슈를 넘어서 사회복지, 공공보건, 주거, 이주 등에서 정책적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함.
 - Community Union의 구성원들은 작업장 정체성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정체성에 기반해 있으며, 노동조합과 비노동조직 간의 연합 활동은 구성원들에게 환경, 장애,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등에 기초한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함.
- Community Unionism의 제기 배경은 다음과 같음.
 - 1964년 미국의 생태주의 마르크스주의자 James O’Connor에 의해 처음 제기됐고, 1960년대 미국자동차노동조합의 급진적 활동가들, 민주당계열의 학생운동가들, 민권운동가들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됐음. 당시 이들은 탈숙련화라는 메가 트렌드로 인해 공장이 조직화에 부적합한 공간이 될 것이며, 미숙련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음.
 - 한 동안 잊혀진 용어였으나 1990년대 이후 Community Unionism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음. 여기에는 민영화와 탈규제 등 신자유주의정책에 따른 고용제도적 보호와 노동조합의 권력이 약화가 작용했음. 대공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흔들리면서 노동조합과 지역공동체조직 연합의 중요성이 제기됐음. 또한 경

제의 서비스화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노동자들의 관계형성 가능성이 커진 것도 Community Unionism의 성장에 영향을 줬음.

-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에서 Community Unionism에 기반한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2005년 출범한 미국의 CTW(Change To Win)는 지역에 기반한 포괄적 노동연합에 기초하여, 저임금의 기업서비스 및 대면서비스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전략을 추구했음. 외주화하거나 해외로 이동할 수 없는 서비스부문과 주변부 제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조직화하여, 이들을 중간계급의 지위로 올려놓겠다는 것이었음.

○ 한편, Community Unionism은 기존 정규직 노동운동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님. 현재의 제도화된 정규직 노동조합운동 역시 공장이 위치한 지역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졌음.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공동체는 노동운동의 형성과 성장에 있어 항상 중요한 요인이었음.

- 그러나 고용 및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중공업 작업장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노동자공동체의 안정성이 붕괴됐고, 이것이 노동조합과 지역공동체 간의 관계가 유리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음.

○ 현실에서 Community Unionism은 환경과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맥락을 갖게 되는데, Tattersall(2008)은 다음과 같은 4개의 분류 범주를 제시함.

- Community Organization/No Union Partner: [미국] 주로 학생운동가들이 만드는 지역공동체의 Worker Center / [한국] 예컨대 사회단체들이 추진하는 무노조 공단지역 조직화운동
- Labour Union(s)/no Community Partner: [미국] 미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청소노동자 조직화사업, CHOP(시카고 가정돌보미 조직화 프로젝트) 운동 / [한국] 예컨대, 산별노조 지역지부가 추진하는 무노조 공단지역 조직화운동
- Community/Labour Partnership (지역공동체조직 주도): [미국] 오마하에서 Industrial Areas Foundation(IAF)와 미국식품상업노동조합연맹의 파트너십 / [한국] 예컨대 세월호 관련 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
- Community/Labour Partnership (노동조합 주도): [미국] 미국노총의 Stamford 조직화 프로젝트/ [한국] 예컨대 희망연대노조의 활동, 양대 노총 중심의 시민사회단체연대

희망연대노동조합의 과제

- 희망연대노동조합의 활동은, 첫째, 지역주민들의 생활세계에 개입하기 위한 풀뿌리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건설해가고 있고, 둘째, 교육과 간부 로테이션 등을 통해 관료적인 위계질서의 공고화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셋째, 노동조합 활동의 조직적 경계를 비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고, 넷째, 노동자들을 조합원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부모, 지역주민, 봉사자 등 다양한 정체성으로 호명하여 활동에 참여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Community Unionism의 현대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Community Unionism의 새로움, 즉 기존 노동운동과의 차별성은 조직이 안정화되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음. 또한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보수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형성된 한국의 지역사회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이러한 조건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원리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위계적인 관료체계에 따라 대중동원을 하는 노동조합과 이슈파이팅을 중심으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시민사회단체는 운영원리가 다름.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간부 로테이션 등으로 관료화를 통제하고 있다지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운영원리 차이는 근본적인 것으로 보임. 이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공식적인 회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임. 또한 조직 간 간부들의 자리바꿈도 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둘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개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지역사회 풀뿌리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의 통제권에도 제도적 개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나 국민제안제도 등 지자체 거버넌스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넓어졌음. 또한 한국은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 국가 거버넌스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목소리 크기보다 지역 거버넌스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목소리 크기가 훨씬 더 큼.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조합원 및 노동자들과 관련된 의제들을 제기하고 실현시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 셋째, “희망”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상징적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함. 2000년대 중반 이후 촛불시위, 쌍용자동차투쟁, 용산참사, 희망버스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희망”이라는 용어가 연대의 구심이 되는

이념으로서 자리를 잡았음. 희망연대노조 역시 어느 정도는 그 역사에 바탕하고 있음. 그러나 “희망”의 실체는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음. 희망이란 결국 “바라는 것”임. 노동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 미래상을 집단적 성찰과 소통 속에서 구체화하는 교육적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함.